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어렵다

임실군의회 반대로 무산 위기...다문화가정·취약계층 불만 높아

임실군이 다문화 가족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했던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이 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 해당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및 교육, 소통의 공간인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의회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군은 임실읍 성가리에 국·도비 25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임실을 해피문화복지센터 2층에 1개층(700㎡)를 증축해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등을 배려한 복합생활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기로 했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8월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됐으며 사업비 25억원을 19억원으로 변경해 9월 정례회 때 다시 올렸으나 군의회는 접근성

이 부족하고 해피문화복지센터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부결시켰다.

군 관계자는 "건립 중인 해피문화복지센터에 증축함으로써 별도의 부지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관리비 또한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사업이었다"며 "같은 건물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나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임실읍에는 다문화 가족과 여성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취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강좌와 실용적인 배움터가 절실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예산이 부결됨으로서 이들의 조그마한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해피문화복지센터는 동아리활동실과 농촌활력센터, 생활체육실, 방을 연습실, 여성 배움터 등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복합커뮤니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이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심 민 임실군수와 담당직원들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비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다문화 가족 주민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과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힘없는 단체의 사업이라고 부결시킨 것 아니냐"며 "지역에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단체의 사업이면 부결시키지 않았을 것이며 소수의 주민을 배려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모 의원은 "주민들이 센터를 찾기에 너무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클 것 같아서 예산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친절·소통행정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환주 남원시장, 민생현장 속으로

운봉읍 가정마을에서 봉사활동

이환주 남원시장은 친절 및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운봉읍 가정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4개 단체 및 업체(남원시 자장면봉사단,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빨래봉사단, LG 전자 하이텔서비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가 동참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시정 4개 실과소(시민소통실, 주민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담당 및 120만원봉사대도 전기, 가스, 건강상담, 농기계, 복지상담 전기, 가스,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시장은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겼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격식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주민들의 마을 회관 앞 유희지를 포장해 주민들

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에 대해 마을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한방진료 등 현장봉사 참여직원들을 격려하고, 120봉사대원들과 함께 홀로노인 가정을 방문해 남은 전선 교체 및 누수 등도 점검하였으며, 남원시 자장면봉사단이 준비한 자장면 봉사에 참여해 마을 어르신에게 배식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을주민 소 씨는 시장이 바쁜 업무에도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생활안전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를 경청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오지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제역 원천차단 특별방역대책 추진

순창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 종합상황실 운영

순창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AI)발생의 원천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 방역보안 방안' 발표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가 기준 500m에서 3km로 확대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늘리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2년→5년)을 늘리는 등 농가의 방역책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군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운영, 구

제역 예방접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3만4148마리(소16,686 염소17,462)에 대해 오늘 31일까지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관리 강화를 통해 농가별 관리에 집중기로 했다.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계열농장)의 방역실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관리와 닭, 오리 이동승인서 발급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 들어갈 예정이다.

순창군 전체 가금류 농가 중 50%가량이 동계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AI 발생시 인근 가금류 농가의 살처분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군 공공식 축산방역계장은 "구제역 AI는 인근지역 발생률이 높아 차단방역에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임으로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빠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일 AI 위기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되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놀러와~ 임실N치즈축제로...손님맞이 준비 끝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8 임실N치즈축제'가 전국 관광객을 맞는데 완벽한 태세를 갖췄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치즈(애)반하다 임실(애)팔리다'를 주제로 9개 테마에 77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군은 특히 무료셔틀버스 증차운행

과 유모차 및 휠체어 수량 증대, 축제장 내 그늘막 설치보강 등 방문객 편의시설에 보다 집중했다.

심 민 군수는 "축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유봉자원방래 불췌나호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이 얼마나 즐거운가'라는 논어 구절을 언급하며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축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벗이 되어 전국 곳곳에서 임실을 찾아와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발효커피 판매량 확대

11월 강천산휴게소에 순창 발효커피 매장 오픈

순창군은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강천산휴게소에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에 이어 순창발효커피 매장도 올해 11월에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순창발효커피는 수백여종의 발효미생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2016년에 유산균과 고초균을 이용한 커피 발효에 최종 성공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현재 순창발효커피 리던(REDONE)은 인터넷쇼핑몰, 전주 한옥마을점,

고속도로강천산휴게소점, 순창농특산품판매장, 발효소스도플, 강천산발효커피전문점, 쿠팡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한편, 군은 발효커피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고용창출 및 새로운 커피산업의 육성과 커피뿐만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한 음료제 품과 사이드 메뉴 등을 개발·판매하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 적극적 하수도 행정 추진

남원시 환경사업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하수도사업 예산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 노력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하수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소는 현재 진행중인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에 700억원(국비 490억, 시비 210억)을 투입해 10월중 착공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개 지구(월산지구,호곡지구,용전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2018년 신규 사업으로 남원(3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72억원(국비 190억, 시비 82억)을 투입하고, 사매면 서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4억원(국비 24억, 시비 10)을 투입해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 될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 중 남원(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도심 일원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및 통행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조기적응 귀농교육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농업인들의 영농경험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조기적응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습 및 사례중심형 교육을 1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이론 및 실습, 채소분야, 과수특작, 밭작물·수도작에 관한 재배기술교육과 현지농가의 사례발표,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과 지역민들과의 소통 및 화합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총망라하여 구성되었으며, 강의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영농현장을 방문해 보고, 듣고, 실습하며 경험담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편성해 단순이론에만 그치는 교육에 비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신청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남원시 전입자 및 은퇴로 인한 신규농업자 등으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문의 620-8014) 또는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